

영웅의 대서사시 창 읊듯 술술 ~ '초원의 음유시인'



우즈베키스탄의 '바흐시' 하이토브 자파르씨가 수도 타슈켄트 교외에서 '구루글리' '잠세트남' 등 중앙아시아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아래 사진은 바흐시가 연주하는 전통악기 '돔비라'(dombira). / 타슈켄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3> 이야기 구연자 '바흐시'

타슈켄트 = 윤영기 기자

"꿈에서 히즈르(Hizr·선지자)를 봐야 바흐시(Bahshi)가 됐습니다. 이 예연자는 꿈꾸는 이에게 '직업을'머리로 줄까, 입으로 줄까'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입으로 주세요'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바흐시들입니다. '머리로 달라'고 응답한 사람은 두 번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됐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만난 소미르조 푸르디예프(55·베루니 동방 연구소) 교수는 "우즈베키스탄 바흐시들은 꿈에서 예연자를 만나 그 길을 걸었다"고 했다. 이 직업의 역사는 10세기,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도 있다.

바흐시는 우리 말로는 '음유시인' '구연자'(口演者)에 해당한다. 판소리 처럼 창(소리)·아니리(사설)·발림(몸짓)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우리의 리듬 악기가 북이라면, 그들은 만물림을 닮은 돔비라(dombira)를 연주한다.

한국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으로부터 신화, 전설 민담을 들었다면, 중앙아시아에서는 전문적인 직업군인 바흐시가 이야기의 전달자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전해지는 영웅 서사시, 전설·설화, 민담에서 이들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글로 옮긴 것이 '알마피시', '구루글리' '잠세트남' '바르주남' 등 중앙아시아 영웅서사 문학(다스탄·Dastan)의 모태다.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바흐시를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역할은 같다. 우즈베키스탄의 카쉬카다리예(kashkadaryo) 지역에서는 '유즈부쉬'(yuz-bosh), 사마르칸트에서는 '소키(soki)'라고 부른다. 바흐시들은 대상(家商)이 머무는 마을 공터, 시장, 사원 등지에서 공연을 했다. 이들의 재치있는 입담과 연주를 통해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삶의 애환을 달랬다.

'바흐시' 하이토브 자파르(27)씨는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고난과 역경, 사랑, 삶의 이

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흐시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우리 판소리와 여러 모로 닮은 게 바흐시다. 철저히 도제식으로 배우고, 1인 창작자 장시간 완창하는 것도 판소리와 비슷하다. '구루글리'라는 영웅 신화는 60권의 책으로 묶여있으며, 100여쪽 분량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흐시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우리 판소리와 여러 모로 닮은 게 바흐시다. 철저히 도제식으로 배우고, 1인 창작자 장시간 완창하는 것도 판소리와 비슷하다. '구루글리'라는 영웅 신화는 60권의 책으로 묶여있으며, 100여쪽 분량

돔비라 연주하며 전설·설화 등 전달
알마피시 등 중앙아시아 서사문학 모태
영웅신화 1권 구연에만 사흘 걸려
마을 공터 등지에서 민족 애환 위로

의 1권을 구연(완창)하는 데만 무려 사흘이 걸린다고 한다.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르다. 판소리는 내치르는 소리지만, 바흐시는 목을 눌러 웅얼거리듯이 이야기한다. 바흐시는 마치 랩퍼처럼 돔비라에 이야기를 얹어 풀어놓는다.

전설적인 바흐시인 예를가씨 주만불불 오글리의

경우 모두 120개 레퍼토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문적인 이야기꾼들은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결혼식에 초청돼 공연한다.

바흐시는 한때 명맥이 끊길 뻔 했다. 우즈베키스탄을 병합한 구소련이 부족과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바흐시들을 추방하고 공연을 금지한 때문이다. 불운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였다.

소미르조 푸르디예프 베루니 동방 연구소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1991년 독립한 뒤 민족정신의 전달자인 바흐시들의 명맥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바흐시 콘테스트를 통해 전수자를 찾고, 그 명인들을 '국민 바흐시'로 지정해 창작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penfoot@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베루니 동방 연구소 쇼미르조 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생생한 이야기 채록 작업
민족간 교류확대 큰 기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 아시아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자료로 축적하는 작업은 민족 간 교류를 확대하고 그 원원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4월18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광주일보 취재진을 만난 쇼미르조 푸르디예프(55·베루니 동방 연구소) 교수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사업(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 영웅서사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아시아의 이야기를 광주의 자산으로 만들어 게임, 영상, 드라마,연극,공연 등 다양한 창작물의 소재로 삼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는 "고갈된 상상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술·문학 등 고전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극,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갈된 상상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술·문학 등 고전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극,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쇼미르조 푸르디예프 교수는 "과거적이고 잔혹한 게임물과 영상물 등이 범람하고 있는 세태에서 아름다운 사랑, 꿈을 담은 전설과 신화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영화신화 등 고전을 번역하고 그 성과물을 영화, 연극,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대본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정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전을 읽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축 계획중인 고객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월! 도 태양열로~

발전용 시차하면 본래이보다향상으로 회전한다.

주택용태양광 3KW, 태양열수시스템, 태양열수시스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완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영업관리 사원모집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원 350kwh 생산 기준표)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